+

민형배·조계원·김문수 의원 발의법안 국회 통과

閱 광산교육청 부활·언론인 트라우마 치유 趙 관광객 안전・전문예술법인 기부금 기준 金 "학교폭력 실태조사, 120일내 발표해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 과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을), 김문수 국회의원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발의한 법안들 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교육자치법'(지방교육자치 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 치·폐지또는통합·분리할수있도록한것이다.관 할구역 및 위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춘 학교 현장 밀착



지원이 가능해져 그간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에 흡수·통합됐던 '광산교육지원청' 부활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 난 사고 상황에서 언론 취재 중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국가트라우마센터 심리지원 대상 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2024년 12월 제주항공 여객기참사를 비롯해 세

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 재난 취재 과정 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보호 공백을 메워 현장 취재 언론인의 정신건강 안전망이 강화될 것으 로기대된다.

민 의원은 "교육과 복지, 둘 다 현장에서 답을 찾았다. 진정한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언론인의 사명감을 국가가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장 목소리를 제도화하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 를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 안'과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도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업과 한옥체험업 등 체험형 숙박시설에서 불법 촬영 장비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영 업을 제한하는 등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해당 문제를 사전 예방 중심 규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숙박업에 비해 규제 적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체험형 숙박(외국 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영역에도 동등 한 안전 기준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했다.

조의원은 "제험형 숙박의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 졌다"며"관광객보호와건전한산업생태계를위해 제도적기반을지속보완할것"이라고밝혔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기존 전문예술법 인·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 자발적으로 기 탁되는 기부금품의 접수 가능 여부를 두고 현장 에서 혼선이 있었던 점을 감안, 모집 뿐만 아니 라, 접수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는 전문예술법인 ·단체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혼선이 있었다"며 "불필 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입법 활동으로 예술인의 창작 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법안은 학 교폭력 실태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결과를 공표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늑장 발 표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의 늑장 발표를 고치는 법안이자 실태조사의 취지를 살리는 법 안"이라며 "조사 결과를 제 때 발표하고 관련 대 책을 적용한 뒤 다음 조사에서 그 효과를 살펴보 는, 일련의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져야 할 것"이 라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李대통령 "아세안 협력강화…초국가범죄 대응 공조"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

"스캠센터 확산으로 많은 청년 희생양" 아세안 정상들, '한반도 평화'에 지지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 일(현지시간) "한국과 아세안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이웃사촌'과 같은 관계"라며 협력 강화 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한국에서의 '이웃사촌'은 피를 나눈 친척과 도 같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은 한국의 3대 교역 대상이 다. 한국은 누적 85억달러에 달하는 ODA (공적개발 원조)를 통해 아세안의 미래에 투자했다"며 "한국 기업들은 자동차・철강・전자 등에서 아세안의 산업 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렇게 가까운 관계가 된 양측은지난해 최고단 계의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를 수립했다"며 "2029년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 의의한국개최도준비할것"이라고언급했다.

한국의 대(對) 아세안 협력 확대 비전인 'CSP 구상'도다시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아세안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Contributor), 아세안의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 (Springboard), 평화와 안정의 파 트너(Partner)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초국가범죄, 해양안보, 재난·재해 등 역내 평화와 안정 수요에 더 적극적으로 부응할 것"이라고약속했다.특히 "최근법집행사각지대 인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스캠센터 등 조직적 범죄 단지가확산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많은 청년이 초국가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세안과의 긴밀한 형사·사법 공 조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며 "한국 경 찰청은 아세아나폴(아세안 지역 경찰협력체)과

의 수사 공조를 통해 조직적 범죄단지를 근절하 겠다. 초국가범죄가 더는 발붙일 곳이 없도록 협 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동료 정상분들과 국제질서 변환기를 맞아 한-아세안의 미래 협력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를 기대한다"며 모두발언 을 마쳤다.

아세안 정상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한국 정부 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 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현지 브리핑에 서 밝혔다.

아울러 마무리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남북의 무너진 신뢰를 되찾아 대화를 재개하고 교류 협 력을 확대하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 해 노력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이후 아세안 정상 회의에서 채택하는 성명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 표명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 고 전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李대통령, 아세안+3 정상회의 발언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인의 기술

ASIRO

오랜기술과 노하루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시의회, 개선 의견 95건 · 정책 대안 제시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광주시의회는 27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 린 입법평가위원회 제3차 회의를 통해 '입법평 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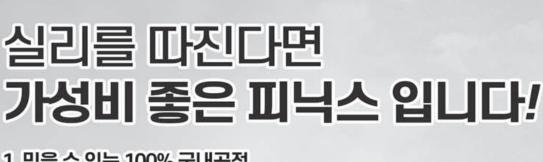
연구용역은 지난 4월 착수해 오는 11월16일 마 무리될 예정이며 시행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50개 조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평가 항목은 입법의 근거・적법성, 조례의 실 효성, 지역 현실 부합성, 조례의 공정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주민 수용성, 정책환경 수용성 등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각 조례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 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제시된 개선안에 대해 입 법평가위원회 위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 됐다. 그 결과, 일반 정비 47건, 개정 권고 43건, 통 합권고 1건, 폐지권고 4건 등총 95건의 개선의 견과 조례와 관련된 정책적 대안도 제시됐다.

이귀순 입법평가위원장은 "향후 조례 제·개 정 과정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속가능 한 입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변은진 기자



-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 2. 신속하고 확실한 A/S
-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퀄리티 품질

FREE 전국 택배 무료 배송!







할인 판매! 최고의 명품 파크골프채 <u>아스트로</u> A100_Nice 22g (±10g), 샤프트 50g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

www.sunparkgolf.com

